

내부 변화·개혁의 몸짓...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국불교 70년 전개 ㉑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현재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은 근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2년에야 성립되었다. 이후 조계종은 교육, 포교, 역경의 3대 과제를 내세워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식민지 시절부터 군사정권에서 군어린 정교유착의 고리와 정치적 종속의 관행은 쉽게 뿌리 뽑기 어려웠다. 또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위해 단행된 불교정화는 그 시대적 명분과 역사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울적 강제나 인적 수준의 저하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즉 근현대사의 격랑을 거치면서 파생된 여러 구조적 모순들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한국불교에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불교정화와 내적 분규를 거쳐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범한 것이 1960년대 초반이었고 이후 1980년대까지 불교계는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는 한편 정치 권력과 밀착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종정 중심파와 총무원장 중심파로 나뉘어 종단 내부에서 분쟁과 대립이 이어졌고, 1975년에는 유신체제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되살리자는 명분으로 조계종 산하에 호국승단단이 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정에서 신군부가 10.27 법난을 일으켜 불교를 탄압한 조유의 사안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종단 상층부는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불교의 수준과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10.27법난은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1980년 10월 27일에 일어났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교정화를 시행할 명분으로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에 군인과 경찰 3만여 명을 일거에 투입하여 대대적인 검속을 단행하였다. 이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불교계가 사치비 승려와 폭력배들이 난동·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는

경쟁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사회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강제 연행을 당하고 구금되었는데 폭력과 고문 등이 공공연히 자행되었고 일부는 삼청교육대로 끌려가기도 했다.

10.27 법난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조계종 총무원 측이 정권에 대한 비협조와 반대를 표명하여 신군부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이다. 또 한편으로는 신군부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부정부패의 축재로 몰아서 불교계의 비자금 회수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앞서 1980년 4월에 취임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 종단 운영과 자체적 정화를 선언하였고 불교재산 관리법의 폐지를 추진하였다. 이는 매우 당연하고 정상적인 주장이었지만 그 이전까지 불교계가 정권에 대해 이처럼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더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월주스님은 광주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였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성명을 거부하였다.

당시 신군부의 서술 퍼린 기세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그들의 편지 않은 심기를 건드렸다. 어쨌든 10.27 법난은 12.12 쿠데타와 광주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집권한 신군부 측이 민의 저항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종의 본보기를 보인 것이었고 불교가 그 대상으로 낙점된 것이다. 교황청과 미국, 서양문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한국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아닌 만만하고 뒤달이 없는 불교가 희생양으로 찍힌 셈이다.

치욕적인 법난을 겪은 이후에도 불교계의 상층 주류는 독재 권력과 유착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과하였고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를 강타한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과 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대개 수수방관하였다. 이는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변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그 위상을 크게 높인 천주교와 비교할 때 불교가 낙후된 전통이자 시대정신과 무관한 보수적 종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일조하였다. 1988년 11월 노태우 정권 때 5공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전두환 前 대통령이 백담사로 피신하여 2년 이상 머문 일은 총계 말하면 불교의 자비행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사적 단죄를 유보하고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기도 하다.

이후 1994년에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불사가 단행되면서 정치권과 유착하여 권위적으로 종단을 운영해 온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가 무너졌다.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여파가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대적 개혁을 표방한 새로운 종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개혁종단이 내건 핵심



2011년 1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의 모습. 불교는 광복이후 70년간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1989년 10월 27일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을 위한 규탄대회' (사진 왼쪽)와 조계종 개혁회의의 현판식(사진 오른쪽). 10.27법난은 한국불교사에 가장 큰 이음으로 남았고, 1994년 종단개혁은 한국불교 변화에 시금석이 됐다.



10.27법난은 한국불교사에 가장 큰 이음으로 남았고, 1994년 종단개혁은 한국불교 변화에 시금석이 됐다.

- 1980년 신군부가 10.27법난 스님 150명 연행해 고문 자행 쿠데타로 입성한 전두환 정권의 민중 반발 잠재우기 희생양
- 1994년 개혁으로 현 체제 마련 연이은 변화로 불교 지형 바뀌
- 평화·비폭력 등 불교 본연 사상 '통일 한국' 가교 역할나서야

골자는 종회의 강화를 통한 입법·사법·행정의 독립과 상호 견제, 종단 재정의 공개와 중앙집중화, 교육원과 포교원의 독립 등이었다. 이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재정을 투명화하며 교육과 포교의 정비를 통해 불교의 인적 수준을 향상하고 대중화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혁불사의 단행은 1980년대에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화, 분규 종식 등을 천명하고 일어난 승려대회나 전국청년불교도연합회, 불교정보연구 전국승가회, 대승승가회 등의 활동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 출범한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를 통해 개혁세력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들 세력은 개혁불사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크고

작은 많은 변화를 추동하며 한국불교의 지형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이권을 둘러싼 합종연횡과 독점이 있다는 권력의 본질적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재정 운영, 선거 방식, 법계에 대한 대응 등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과 부조리 또한 여전히 크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본사 주주의 임면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한 조선 총독의 권한 상당부분을 총무원장이 가진다는 것이 다를 뿐 본사제도와 본사 주주의 큰 영향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사찰령 체제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저 및 은저 문제와 함께 식민지의 유령이 21세기 한국불교의 주위를 여전히 맴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발본색원의 혁신적 노력이 없이는 구조와 시스템의 개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근대화 와 대중화, 민족불교의 창출, 사회화와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고 시대의 격랑을 겪으며 역동의 불교사가 전개되어왔다. 당연히 그 안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출세간의 도인 불교가 세속의 정치적 격변과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종권의 행사와 교단 운영, 계율의 수지에서도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모습이 종종 나타나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주체적, 자율적, 평화적, 화합적 방식

보다는 강제적, 타율적, 폭력적, 분쟁적 양상이 두드러졌고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보편적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식민지를 거쳐 광복 이후 70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불교는 무기력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종교로서 각인되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폭력과 몰상식, 비정상의 이미지가 덧붙여지기도 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민족의 심성과 내세관, 문화 형성에 주축이 되어온 자랑스러운 불교 전통은 서양문명을 상징하는 기독교에 예서 일구어온 자본을 상당량 넘겨주어야 했다. 현재 한국불교는 개신교, 천주교에 비해 사회적 이미지나 위상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전통 종교, 민족종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득권은 근현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잠식된 지 오래이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정체성과 미래적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언제 제대로 된 결실을 거둘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불교는 25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고도로 세련된 사유체계이자 세계종교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인류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교 전통은 여러 다양한 시공간이 중층적으로 쌓여진 문명복합체로서 창조적 생산을 거듭해 왔다. 그렇기에 불교적 세계는 신앙과 수행과 같은 종교적 가치와 함께 사상과 역사, 사회와 문화 등 폭넓은 지형도로 그려낼 수 있다. 한국사의 전개과정에서도 불교는 고유 신앙 및 고대적 관념과의 충돌과 융합을 거치면서 한국인

들의 심성과 내세관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불교는 한국 문화와 전통의 근간을 형성해 왔고 한국적 특성이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광복 70년을 맞아 불교에 부여된 또 하나의 민족사적 사명은 통일로 가는 가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1700년 이상 한민족과 함께 해왔고 그렇게 일구어진 문화와 전통은 남과 북으로 나뉠 수 없는 공통의 역사적 산물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거부반응은 가질 수 있지만 불교와 유교에 대한 적대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즉 같은 민족으로서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는데 불교는 저해요소나 부정적 대상이 아닌 긍정과 상생의 매개이자 상징으로 통용될 수 있다.

더욱이 불교는 삼국통일과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통일의 고리이자 평화의 아이콘으로 기능한 바 있고 이는 21세기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도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불교는 시야를 보다 확대하여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확산과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전적 경험과 문화적 유산을 우리 역사와 불교 전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속한 동아시아 세계는 한자문명권이면서 불교문화권이었고 따라서 불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전근대와 탈근대의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결고리이자 매체이기도 하다. 이제 불교는 아시아의 오래된 종교전통에 머물지 않고 21세기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 사유이자 가치체계가 나아가야 한다. 한국 불교 또한 종파적 이해관계나 국내의 지분에 머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며, 보다 거시적이고 문명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혁신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 본연의 장점인 평등과 비폭력, 자율과 화합, 공동체와 이타주의 등의 온전한 복원과 문명사적 가치의 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던지는 이타적 화두를 마음속에 아로 새겨야 한다. 또한 현실종교로서 한국불교가 직면해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이를 대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정 투명화와 인사의 공공성 확보, 교육과 계율 등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복지과 환원, 삶의 행복과 죽음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와 현시대의 요청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아가 진정한 불교도라면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와 아시아인, 세계와 세계인들과 손을 잡고 평화와 행복의 현실정토로서 지구촌의 미래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2015年 乙未年

謹賀新年

'삼사참배 제일도량' 보타락가사로 용왕재 올리러 오세요



보타락가사에 봉안된 지장보살상.

보타락가사는 삼사참배와 용왕재,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 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웅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업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까지는 용왕재를 지내려 해도 넓은 기도터가 있는 사찰이 없어서 크게 불편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관음성지 보타락가사가 완공돼 불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사참배나 용왕재를 봉행하고자 하는 사찰은 연락 주십시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253-4 보타락가사
전 화 041)672-1550,
휴대폰 010-3723-0695(원주보살)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법진스님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